금요 수필

아직도 신문을 보십니까

최 선 욱
문학박사 · 수필가

"언젠가부터 눈 속엔 나비가 들어와 살고, 귓속엔 매미가 들어와 산다."

누군가 노화 현상을 위트있게 표현한 농담이 웃프다.

나도 가끔 비문증이나 이명 현상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험을 해보아서 그 불편함을 잘 안다. 처음엔 화들짝 놀라며 걱정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세월 앞에 찾아오는 손님이려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나마 시력은 걱정이 덜하다. 젊어서 시력이 좋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노안이 빨리 와서 돋보기가 필요하지만, 나처럼 젊어 근시였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는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더 잘 보이니까 돋보기가 필요 없다. 이 나이에 글 읽고 쓰는 일에 아직 불편함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수십 년째 조간신문 구독자이다. "아직도 신문을 보십니까?" 주변인들이 의아한 듯이 묻는다. 그 작은 신문 활자를 참말로 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안경을 벗고 두리번거리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찾아내 읽어주면 이내 궁금증은 풀린다. 뒤이어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모든 걸 알려주는데 구태여 돈 주고 신문을 보느냐고 재차 묻는다. 나는 빗대어 느림의 미학을 설파한다. 비록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려면 자전거를 타거나 한가로운 산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현관문 앞에 던져진 조간신문은 보통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남편이 집어온다. 남편은 아직 다 휴발되지 않은 신문지의 특유한 냄새와 새벽바람의 냉기가 섞인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남편의 유일한 독서 시간이다. 아침 식사 전까지 다 못 읽었는지 식후에 다시 붙든다. 돋보기를 끼고 글을 오래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면서도 계속 읽는다. 남편이 점심 약속 있다며 외출한 후에야 신문은 내 차지가 된다.

난 가끔 딴 일거리로 섯돌아치는 바람에 신문을 밀쳐 둘 때가 있다.

그렇게 쌓이다보면 어느 땐 며칠 분량을 몰아서 보기도 한다. 안 읽고는 절대 버리지 않는 충실한 구독자이다. 같은 기사라도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맛과 종이 맛은 다르다. 또 핸드폰상의 기사 읽기는 시간 때우기라면, 신문은 관심있는 분야의 기사를 골라 시간을 들여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 좋다. 세상 물정에 약삭빠르지 못한 탓인지 뒤든지 유행보다 한 걸음 뒤떨어져야 마음이 편하다. 바야흐로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영상시대인데 나는 여전히 문자를 사랑하며 아날로그 세상을 즐기고 있다.

내 친구의 남편 중, 나만큼이나 신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물건을 잘 안 버리는 습성이 있다는데 특히 책이나 신문 등 활자화 된 것을 함부로 못 버리고 쌓아두는 바람에 저장 창고가 따로 필요할 정도까지 왔다고 한다. 그는 아마도 모든 물자가 풍성하지 못했던 60~70년대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레 검약이 몸에 배인 사람일 것이다. 친구는 버릴 것 바로바로 버리고 공간을 넓게 쓰자는 주의이고, 친구의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책자나 신문은 글쓴이의 노고를 생각하면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고집하다보니 이 문제가 부부간 말다툼거리가 되곤 한단다. "글쓴이를 존중하는 걸 보니 자네 남편은 참선비시다!"고 말했다가 하마터면 우정에 금이 갈 뻔 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문자는 갈수록 홀대받고 있다. 교사로 재직 중에 문예담당자로서 교지나 학교신문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졸업식장에서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이려니 그것들을 안겨주건만 늘 기대는 어긋난다.

애써 만든 교지나 학교신문이 펼쳐본 흔적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 정교한 활자 퍼즐이 와르르 무너지듯 내 마음도 무너진다. 글 한 편 한 편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완성되는지 글을 써 본 사람은 안다.

글쓴이는 물론 편집, 편찬할 때까지의 여러 손길의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짐을 볼 때 내 마음도 찢어진 종잇장만큼 찢어진다. 내 자신이 짓밟힌 듯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일간 신문의 애독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고문

해외 취업사기 주의보 발령

김 우 림
부안경찰서
경무계 행정
서기보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고수익', '단기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 사실은 잔혹한 범죄 조직의 덫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우리 모두를 소스라치게 하고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월 천만 원 보장', '경력 무관 전액 지원' 등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는 경계 1순위이다.

이러한 광고를 믿고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구직자들은 여권을 압수 당하고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취업사기를 넘어 인신매매와 조직적인 범죄 연루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취업 조건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지 물가와 임금 수준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보장, 면접, 경력 심사 없이 간소화된 채용 절차, 파격적인 항공권, 숙식비 초기 정착금 선지원 약속 등 이러한 허위 광고에 속아 동남아 지역에 입국하는 순간,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와 심각한 구타, 강제 노동의 덫에 갇혀, 씻을 수 범죄에 강제로 동원된다.

단 한 순간의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이거나 고수익을 유혹하는 광고는 의심하고 채용 기업 및 공고의 신뢰도를 철저하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취업 사기의 덫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 즉 개인의 신중함과 경계심이 바로 최고의 안전망이 된다. 모두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위해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에 멈추어 서서 안전한지를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

사 설

지자체 관사에 세금 줄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흔히 '관선 시대의 유물'로 불린다. 과거 임명직으로 부임한 단체장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짜'로 제공되던 것이다.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단체장 자택이 관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아예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다. 부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 관사의 경우에도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관리비나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은 스스로 내게 했다.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대구시장과 강원·경북·전남 도지사 등 5명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등 2명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창군의 경우 단체장용 1급 관사를 정부 권고 이후인 2022년 10월, 3억 980만 원에 매입한 거로 확인됐다. 새 평창군수 취임 석 달 만이다.

단체장 관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과 같은 운영비까지 자부담이 아닌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평창군수가 이미 관내에 자신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관사 개수는 1,877개에서 2,018로 오히려 141개 늘었다. 5년 간 관사 취득비 806억 원, 운영비 74억 8,000만 원, 유지관리비 197억 9,000만 원 등 세금 1,078억 원이 쓰였다.

도서지역이나 격오지, 재난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는 꼭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관사 제공은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전북 경읍 출신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이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원로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취임 후 외부 기관장을 공식 예방한 첫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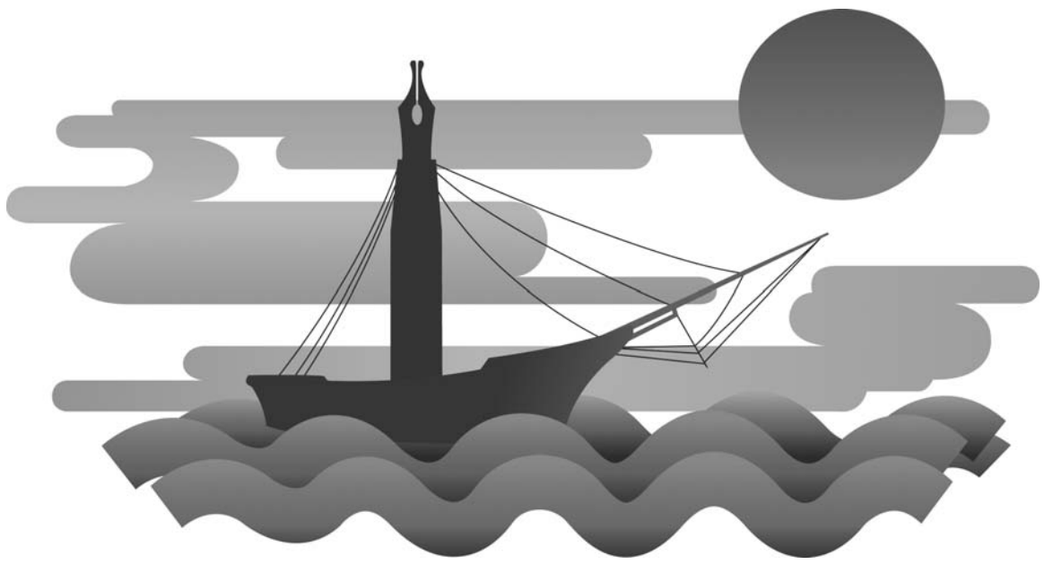
우 의장은 이 위원장에게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된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성과를 내도록 국민에게 파고들고, 정부나 국회에서 협조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